

“더는 갈 데가 없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 부산시청 노숙농성 돌입... “8년 투쟁 끝을 봐야 하는 처지다”

노조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지회장 문영섭)가 7월 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부산시가 정리해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투쟁한다고 밝혔다. 풍산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인 공장용지의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었고, 부산시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을 반여동 공장에서 쫓아내려 했다. 풍산은 부지만 남기고 회사는 투기지분에 매각했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011년 정리해고 후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무효판결을 받았지만, 복직 후 공장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강제 휴직에 내몰린 상태다. 풍산마이크로텍은 화재 이후 경기도 화성으로 공장을 기습 이전했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투쟁돌입 선언문에서 “부산시가 주도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풍



산 재벌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특혜개발로 인해 회사가 매각되고 정리해고됐다. 부산시가 우리의 구조조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며 “공공 개발을 가장한 특혜개발을 위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현재 2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다” 라고 밝혔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적폐세력이 진행한 특혜개발로 생존을 위협받는 노동자이기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촛불을 들었다”라며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결사해결 자세로 부산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라고 촉구했다. 현재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합원은 스물세

명이다. 열 명은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열한 명의 조합원은 강제 휴직 조치를 당했다. 두 명의 조합원은 투쟁을 벌이며 장년퇴직을 맞았지만, 동료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투쟁하고 있다.

문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지난 8년 동안 조합원의 70%가 피눈물을 흘리며 공장을 떠났다. 조합원들의 가장 큰 설움은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라며 “8년의 길거리 투쟁이 아버지를 기죽이 어린 손님으로 만들었다” 라고 털어냈다.

문영섭 지회장은 “우리가 투쟁을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더는 갈 데가 없다”라며 “모든 조합원이 여기서 끝을 봐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농성을 시작했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부산시청 광장 농성을 365일 유지하며 부산시청 후문에서 출근 선전전과 점심 선전전을 벌인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 강요받고 교섭 나와라”

노조 신도리코분회, 성실 교섭 촉구대회 열어... “60년 구시대 노무관리 금속노조가 깬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신도리코분회와 지역 노조 단체 대표자들이 7월 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본사 앞에서 ‘신도리코 성실 교섭 촉구대회’ 를 열었다.

신도리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6월 7일 노조를 만들고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분회는 노조 설립을 통보하고 6월 20일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사업일정 등을 핑계로 ‘4주 후

에 보자’라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신도리코 사측은 교섭을 회피하며 주 52시간 제 시행 방안을 담은 인사제도 변경안을 일방 발표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분회는 “회사가 절차부터 문제 있는 인사제도 변경안을 일방 발표해 신도리코 노동자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고 구시대 노무 관행으로 노사관계의 파행을 자초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신도리코 사측은 포괄연봉제가 아남에도

‘강제하지 않았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라며 시간외근무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외근직원들은 교통비와 식대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 교육과 업무 시간 외 회의, 월례 조회 등도 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